



기술적 분석

로하카 · 조광덕 지음



주식에 비법이나 정답은 없다. 해법만 있을 뿐이다.

잇밤침

실전 관심종목 매매전략
실전 종목선정 기법
실전 재무제표 분석
전업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주식 초보 시절 실패하는 유형
주식 초보 하지 말아야 할 종목 유형
감사보고서 시준 주의해야 할 종목
유상증자 및 감자
전환사채, BW
현재가창
매수, 매도 기준
매매일지 작성법
손절매
종목 검색기
각종 보조지표 강의 등

... 1,000개 이상 강의 자료

책 강의 동영상 보는법

The screenshot shows the Naver channel page for '로히카의 10분 주식코칭'. The '재생목록' (Playlist) tab is selected, showing a grid of video thumbnails. A red box highlights the '재생목록' tab and the video thumbnails.

1. 유튜브 '로히카의 10분 주식 코칭' 검색
2. '로히카의 10분 주식 코칭' 홈 접속
3. [재생목록] 메뉴를 클릭하여 페이지 이동
4. [책]기술적 분석 재생목록 동영상 시청

YouTube 로히카의 10분 주식코칭

<https://www.youtube.com/channel/UCksP6pe4XeLIMLBYPa3QDsw>

NAVER 로히카의 10분 주식코칭

<https://blog.naver.com/skyko6522>

afreecaTV 로히카의 10분 주식코칭

<http://afreecatv.com/skyko6522>



<https://www.instagram.com/withnote21c/>



<https://blog.naver.com/ismartdream>

“기술적 분석” 책 구매는 아래 링크 클릭

<https://smartstore.naver.com/esupport/products/3699092758>

<https://smartstore.naver.com/esupport>

항상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유튜브, 블로그, 아프리카TV 구독자님, 이웃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적 분석

로히카 · 조광덕 지음



주식에 비법이나 정답은 없다. 해법만 있을 뿐이다.

 뒷받침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 11

- 1 주식투자를 위한 준비 ▶ 12
- 2 기술적 분석 vs 기본적 분석 ▶ 17
- 3 투자자(Investor) vs 트레이더(Trader) ▶ 44
- 4 예측 vs 대응 ▶ 65
- 5 고수 vs 하수 ▶ 75
- 6 비법 vs 기법 vs 전략 ▶ 78
- 7 주식과 도박이 다른 이유 ▶ 84
- 8 좋은 때가 왔을 때만 참여한다. ▶ 88
- 9 파분해도 정수가 최선이다. ▶ 89
- 10 노력 없이는 결과도 없다. ▶ 91
- 11 시장은 항상 옳다. 그른 것은 나다. ▶ 93
- 12 선수가 아닌 감독의 시선으로 결정한다. ▶ 95
- 13 없음(無)이 곧 쓰임(用) ▶ 97
- 14 이길 수밖에 없는 곳에서의 전쟁 ▶ 100
- 15 물음느낌표 ▶ 102
- 16 주식? 주식! ▶ 104
- 17 복잡한 것을 단순화 ▶ 106
- 18 비법이나 정답은 없다. 해법만 있을 뿐이다. ▶ 108
- 19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전략 구사 ▶ 110
- 20 결국 이기는 습관을 몸에 익힌다. ▶ 112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 115

- 1 기술적 분석을 익히면 수익을 낼 수 있는가? ▶ 116
- 2 기술적 분석의 이론과 실전의 차이 ▶ 119
- 3 결국 익히고 나서 잊고 스스로 지표가 된다. ▶ 121
- 4 기술적 분석 핵심 ▶ 122

차트 ★★★ 125

- 1 차트의 종류 ▶ 126
- 2 봉(캔들) 패턴 ▶ 138
- 3 거래량 ▶ 147

Chapter

4

추세 ★★★★★ 175

- 1 추세의 개념 ▶ 176
- 2 추세선 ▶ 181
- 3 추세선의 문제점 ▶ 185
- 4 추세대 ▶ 189
- 5 추세선과 추세대의 활용 ▶ 191

Chapter

5

지지와 저항 ★★★★★ 195

- 1 지지와 저항의 개념 ▶ 196
- 2 지지와 저항의 문제점 ▶ 199
- 3 지지와 저항의 활용 ▶ 203

Chapter

6

패턴분석 ★★ 219

- 1 반전형 패턴 ▶ 220
- 2 지속형 패턴 ▶ 240

엘리어트 파동 ★★★★★ 255

- 1 엘리어트 파동의 탄생 배경 ▶ 256
- 2 엘리어트 파동의 개념 ▶ 259
- 3 엘리어트 파동의 성격 ▶ 268
- 4 엘리어트 파동의 문제점 ▶ 290
- 5 엘리어트 파동의 활용 ▶ 293

갯의 각도론 ★★★ 297

- 1 갯 이론의 탄생 배경 ▶ 298
- 2 갯의 각도론 ▶ 299
- 3 갯 이론의 문제점 ▶ 304
- 4 갯 이론의 활용 ▶ 307

Chapter

9

일목균형표 ★★ 313

- 1 일목균형표의 개념 ▶ 314
- 2 일목균형표의 형태 ▶ 315
- 3 시간론 ▶ 322
- 4 가격론 ▶ 325
- 5 파동론 ▶ 328
- 6 일목균형표의 활용 ▶ 333

Chapter

10

보조지표 ★★★★★ 339

- 1 이동평균선 ▶ 340
- 2 MACD ▶ 361
- 3 Stochastic(스토캐스틱) ▶ 377
- 4 RSI ▶ 387
- 5 Bollinger Bands(볼린저 밴드) ▶ 401
- 6 OBV ▶ 414
- 7 DMI, ADX, CCI ▶ 420

Chapter
11

HTS 설정 방법 ★★★ 441

Chapter
12

실전에 자주 보이는 차트 유형 11가지 459
★★★★★

Chapter
13

홀로서기 ★★★★★ 479

- 1 전업투자를 꿈꾸는 이들이 알아야 할 19가지 사항 ▶ 480
- 2 공부해야 하는 이유 ▶ 495
- 3 홀로서기 ▶ 503

기술적 분석



Chapter

1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1. 주식투자를 위한 준비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대부분 원하는 것은 비법이다. 대단한 매매 기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그러나 기법부터 배운다는 것은 갓 난아기가 기거나 걷기도 전에 뛰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초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초보자의 경우 주식시장의 원리를 먼저 이해한 후 다양한 시장 환경(상승, 하락, 횡보, 급등락)에 맞게 매매기법과 매매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이후에 수익 극대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기법과 전략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천지차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주식의 일반적인 이론보다 체계적으로 실전에 중점을 둔 이론 학습을 원한다.
- 2) 기술적 분석이 정확히 무엇이고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후행성 지표를 왜 철저히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원한다.
- 3) 대단한 비법인양 과거 차트로 짜맞추기식 기법을 원하기보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급등장, 급락장 등 다양한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기법과 전략을 갖고 싶다.
- 4) 주식이 쉬운 줄 알았는데 막상 경험해보니 어렵다. 그 원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 5) 나의 공부법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궁금하다.
- 6)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나도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싶다.
- 7) 나는 왜 수익이 나지 않는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원한다.
- 8) 종목선정 방법을 모르겠다.
- 9) 매수타이밍을 모르겠다.
- 10) 수익실현 혹은 손절의 매도타이밍을 모르겠다.
- 11) 손실보다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
- 12) 결국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매매 기법과 전략을 원하고 홀로서기 하고 싶다.

위 12가지를 이 책만 보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을 정독하다 보면 최소한 위 12가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결국 시장에서 실전 경험을 토대로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거듭해 보면서 경험치가 축적된다 보면 어느 순간 손실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식도 하나의 언어이다. 영어 10년, 30년 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방법의 차이로 누구는 몇 년 안에 대화할 수 있지만 평생 해도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은 제대로 된 공부방법을 먼저 찾고서 거기에 맞게 꾸준한 노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리는 것이다. 주식 역시도 잘못된 접근방법으로 시장에서 절대 수익이 난다고 하는 비법만 좇다 보면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성실함과 꾸준함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책을 읽는 독자의 수준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3개월 이내인 사람, 1년 넘도록 아직 자신만의 매매전략이 없는 사람, 10년 이상 되었지만 손실만 나고 종목선정도, 매수도, 매도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다. 각자 성향이 다르지만 맨 처음 주식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몇 가지 경우 중의 하나일 것이다. 주위에서 주식으로 수익 났다는 말에 뛰어들어든 사람, 지수 상승장에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접해보고 접근한 경우, 펀드에 투자했지만 변변치 않아 직접 투자를 고려한 경우, 사업 실패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박을 노리고 뛰어들어든 경우, 퇴직금을 받아 노후준비 차원 혹은 개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선택한 경우, 직장 다니면서 재미삼아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경우 등 대부분이 나열한 경로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대개 주위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 났다는 말을 들었지 손실 난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지금 하지 않으면 소외된다는 기분이 들어서 주식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순한 인간의 심리이다. 수익 나면 자랑하고 싶은 심리, 손실 나면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하고 싶은 심리를 안다면 왜 주위 사람들은 항상 수익이 나는지에 대

해서 어렵פות이 짐작이 갈 것이다.

주식! 참 쉽게 들리고 어렵지 않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쉽게 계좌도 개설 가능하고 바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깐 많은 부분에서 과거보다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은 눈물과 좌절과 절망으로 돌아오고 어느 순간 매수주문을 넣기가 겁이 나는 단계까지 온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투자자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런 경험을 한 독자라면 내가 말한 의도를 너무나도 공감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에 섬뜩한 기분까지 들 것이다.

결국 주식공부 방법의 차이다. 잘못된 방향을 잡아 잘못된 습관이 문제다.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먼저 주식 접근 방법 중에서 방향을 잡는데 주안점을 두고서 이후에 필자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표나 투자심리학 등 너무 원론적인 내용은 과감히 제외하고 기초이론부터 설명한다. 그렇다고 실전에 무용한 부분이나 투자심리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독자가 스스로 좀 더 깊게 알고 싶다면 다른 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고 필자는 이 책의 메인테마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꼭 순서대로 1장, 2장 순으로 보고 나서 3장부터 공부하기를 바란다. 1장~2장까지는 주식시장 전반적인 방향에 관한 내용이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기법, 기술만 배우고는 절대 홀로서기를 할 수 없다.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는 것은 처음부터 정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학습하면 된다. 또한 책의 목차대로 유튜브 강의 동영상(무료, 책 앞표지 뒷면 참조)을 제작할 것임으로 함께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이고 질문사항은 각 동영상 댓글로 질문하면 최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로히카의 10분 주식코칭



NAVER 블로그

로히카의 10분 주식코칭



<https://blog.naver.com/skyko6522>

afreecaTV



로히카의 10분 주식코칭



<http://afreecatv.com/skyko6522>

주식투자를 위한 준비는 어렵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된다. 그걸로도 충분하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장부터 정독하고 실전에 응용, 경험치를 축적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종국에는 필자보다 능력 있는 투자자 및 트레이더가 되기를 바란다.

2. 기술적 분석 vs 기본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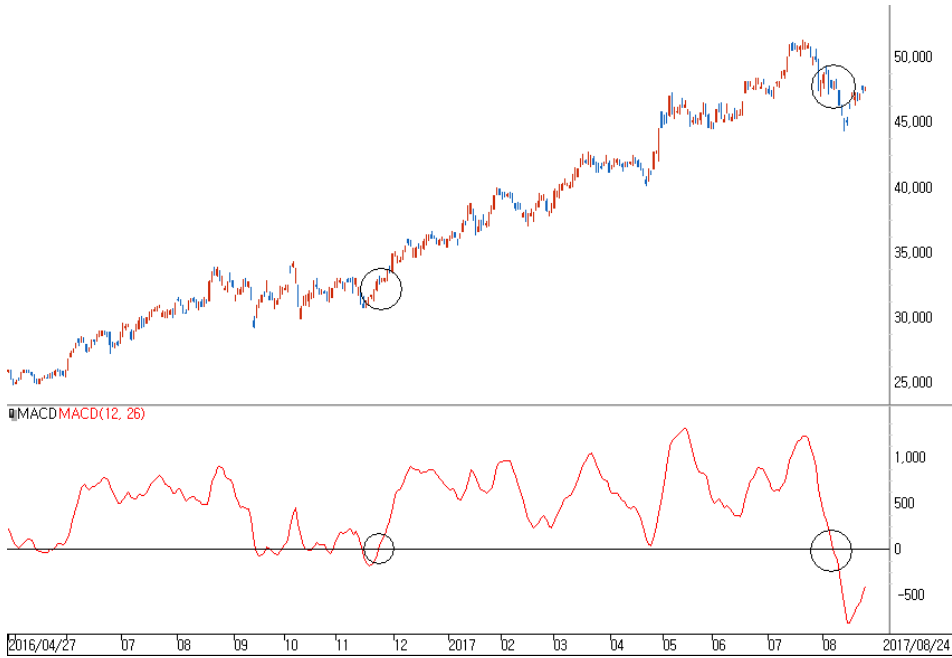
주식 투자를 기술적 분석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 이 책을 집어 들었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고 활용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함일 것이다.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과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종목 선정하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초보라는 가정하에서 설명할 것이고 제목에는 대응의 의미로 기술적 분석 vs 기본적 분석으로 하였지만, 상대평가를 해서 투자 하는 데 있어 어떤 도구가 더 나은지,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먼저 기술적 분석, 차트를 활용해서 매수타이밍, 매도타이밍(수익실현, 손절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적 분석의 유용함도 함께 알아본 다음에 두 가지의 역할에 관해서 설명할 것이다.

현재 여기서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책에서 사용방법, 수치 설정 방법, 장단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 분석이란 이런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급등주를 예로 들어 차트 분석을 해 보도록 하자.

간단하게 MACD 하나만 가지고도 매수할만한 종목인지 관망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바로 차트를 보고서 얘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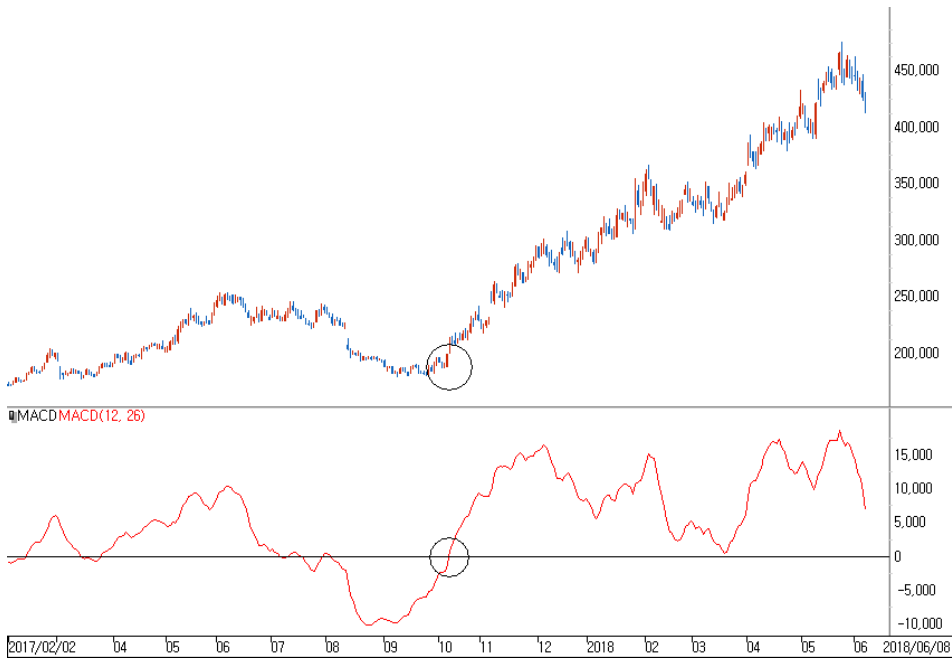
〈그림 1-2-1〉 삼성전자 일봉 차트와 MACD

MACD 선은 오실레이터, 시그널 선을 활용한 매매법 등이 있는데 단순히 MACD 선으로 활용해서 0선 돌파 시 매수, 하회 시 매도로 단순화시켜 사용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200만 원 넘었던 주가가 액면분할로 주가가 5만 원대로 낮아져 운용자금에 적은 개미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0선 돌파 후 매수하고 0선 하회했을 때 매도했다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 1-2-2〉 셀트리온제약 일봉 차트와 MACD

셀트리온제약 역시도 0선 돌파 때가 주가가 2만 원 초반이었고 0선을 밀도는 시점이 주가가 8만 원대 중반이니깐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림 1-2-3〉 신세계 일봉 차트와 MACD

〈그림 1-2-3〉 20만 원 이하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후 100% 이상 수익 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0선 하회를 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다. 수익 실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영역이지, 지금 매수를 고려하는 시점은 아니고 다른 형태로 기준점을 잡아야 할 것이다. MACD는 현재 매수나 매도, 특히 손절매의 기준점이 없는 초보들한테 매수타이밍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만 0선을 하회할 경우 매도하고 관망하는 도구로도 상당히 유용하다.



〈그림 1-2-4〉 NAVER 일봉 차트와 MACD

NAVER 종목의 경우 MACD 0선 하회 이탈 시 매도하고 관망했다면 추가적인 손실을 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림 1-2-5〉 한화 일봉 차트와 MACD

한화 종목의 경우 MACD 0선 돌파 시 매수하고 하회 시 매도 혹은 관망했다면 수익은 창출하고 큰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위 몇 가지를 보여주면 독자 중에서 ‘그럼 단순히 MACD 0선 돌파, 하회 이탈만 보면 되겠네. 수익 내기 쉽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MACD는 추세지표이다. 필자가 추세적으로 상승 혹은 하락한 종목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수익, 손실이 보이는 것이다. 만약 추세가 아닌 비추세, 박스권 혹은 횡보의 주가 흐름이라면 매수, 매도 반복으로 잦은 매매 및 손절이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한다. 대개의 책이 수익 나는 형태만 보여주다 보니 독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것이다. 반드시 그 반대, 손실 나는 경우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기술적 지표 도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차트들을 보도록 하자.



〈그림 1-2-6〉 삼성물산 일봉 차트와 MA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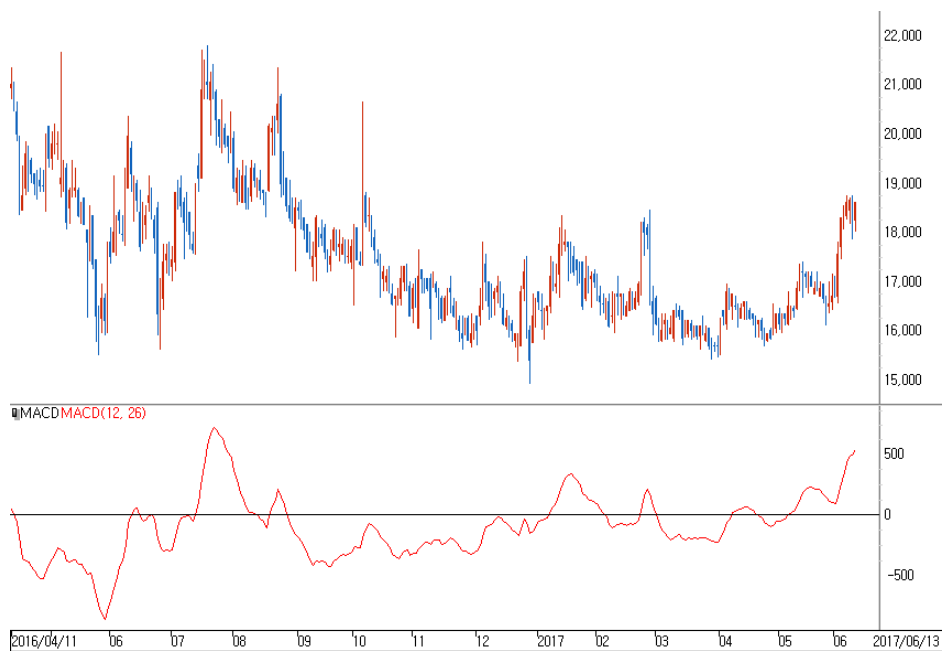
〈그림 1-2-6〉한눈에 봐도 무언가 복잡해 보이지 않는가? 박스권 및 지지부진한 횡보장 흐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 매수 신호, A-1 매도 신호로 손절, B 매수 신호, B-1 매도 신호로 약간 수익, C와 C-1 매매로 손절, D와 D-1 본전부근, E와 E-1 본전부근으로 볼 수 있다. 추세로 진행된 종목들과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쉬워 보였고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는데 거의 1년여 동안 손절, 본전, 약간의 수익 반복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는 모양새이다. 나중에는 박스권 모습에 지쳐서 그냥 손절하지 않고 또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실전 매매는 많이 보고 많이 분석하고 많은 경험만이 실력을 증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꿈수는 없다. 비법도 없다. 정도에 따라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차트도 볼 것인데 표시한 부분만 확인해도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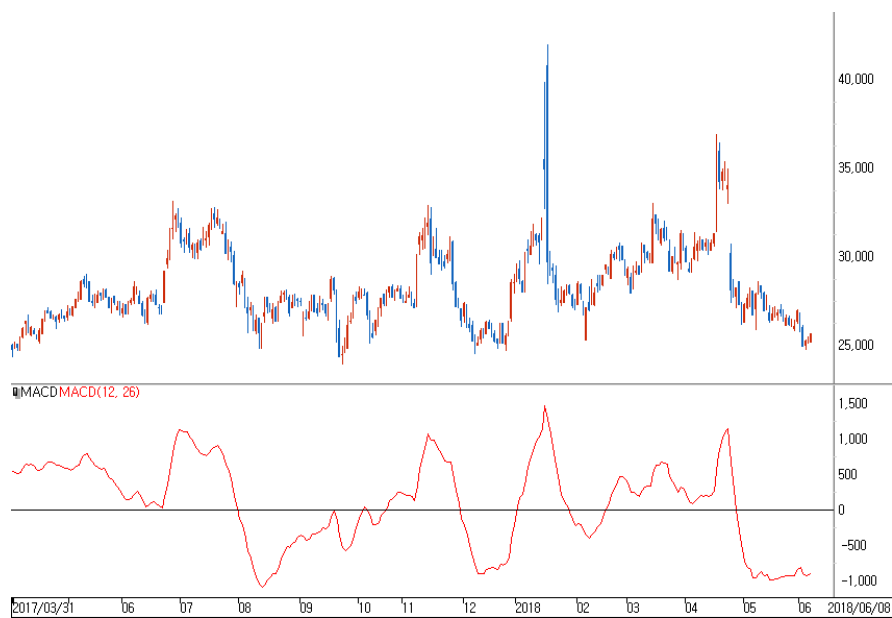


〈그림 1-2-7〉 박스권에서의 MACD

다음 차트부터는 지표 및 차트에 표시하지 않아도 바로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림 1-2-8〉 박스권에서의 MA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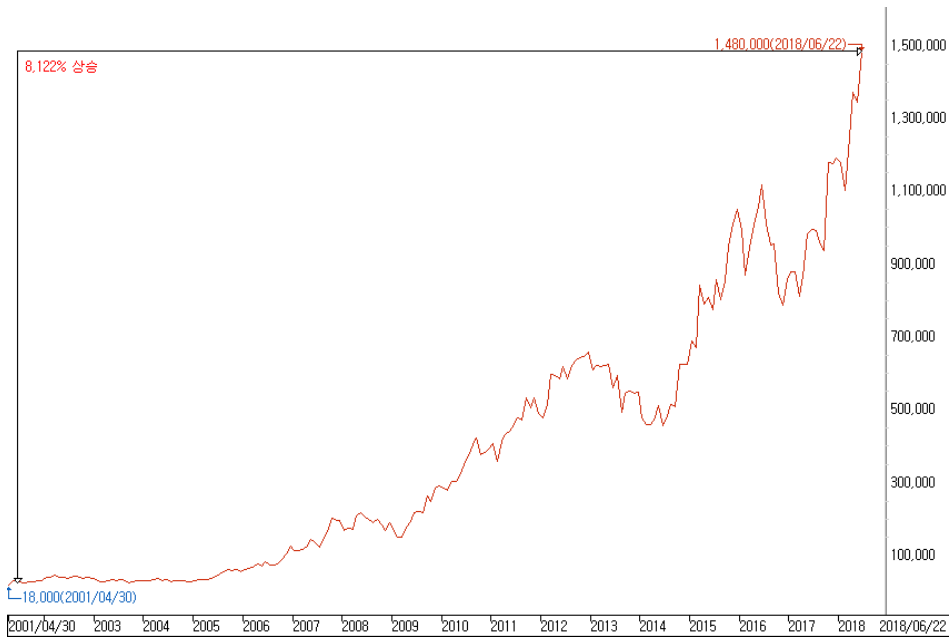


〈그림 1-2-9〉 박스권에서의 MACD

그럼 추세에서는 MACD가 유용한 데 박스권에 유용한 지표는 없는가? 물론 있다. 다만 이 역시 미래 주가가 추세로 될지 비추세로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할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후행성이라면 굳이 기술적 분석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아니다.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실전에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매매전략을 정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무기이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얘기할 것이다.

어떤 기술적 지표가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유용한지 각 지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법에 관해서 설명할 것이다. 지금은 단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만, 해당 지표에 대한 유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로 정리하겠다.

그럼 이제 기본적 분석의 유용성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마지막에 기술적 분석 vs 기본적 분석에 대해 정리를 할 생각이다. 기본적 분석은 회사의 이력서인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투자할 종목을 선정하는데 이때 자산가치, 수익가치, 그에 따른 재무항목, 재무비율을 확인해 보고 해당 업종 및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했 목적으로 투자하는 중장기투자자에게 유용하다. 여기서는 간단히 재무제표상 영업성과만 보고 투자한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



〈그림 1-2-10〉 LG생활건강 종가선 차트

〈그림 1-2-10〉는 LG생활건강의 종가선 차트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2001년 4월 30일 18,000원 하던 주가가 17년이 지난 2018년 6월 22일 1,480,000원 까지 상승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 상승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기	제2기	제1기(2001.4.1~2001.12.31)
[유동자산]	242,332	242,774	232,488
· 당좌자산	170,549	167,622	167,100
· 채 고 자산	71,782	75,152	65,388
[고정자산]	401,294	435,361	414,107
· 투자자산	84,140	116,004	105,578
· 유형자산	311,305	312,802	302,190
· 무형자산	5,849	6,555	6,339
· 이연자산	-	-	-
자산총계	643,626	678,135	646,595
[유동부채]	298,643	327,891	296,933
[고정부채]	58,375	79,057	99,378
부채총계	357,018	406,948	396,311
[자본금]	88,589	88,589	88,589
[자본잉여금]	97,343	97,343	97,263
· 자본준비금	54,794	54,794	54,794
· 재평가적립금	42,469	42,469	42,469
[이익잉여금]	101,928	81,556	55,309
[자본조정]	△1,253	3,699	9,122
자본총계	286,608	271,187	250,284
매출액	1,057,120	1,095,140	772,268
영업이익	69,397	98,240	78,499
경상이익	67,196	95,584	79,232
당기순이익	48,260	44,055	55,629

〈그림 1-2-11〉 LG생활건강 2001년~2003년 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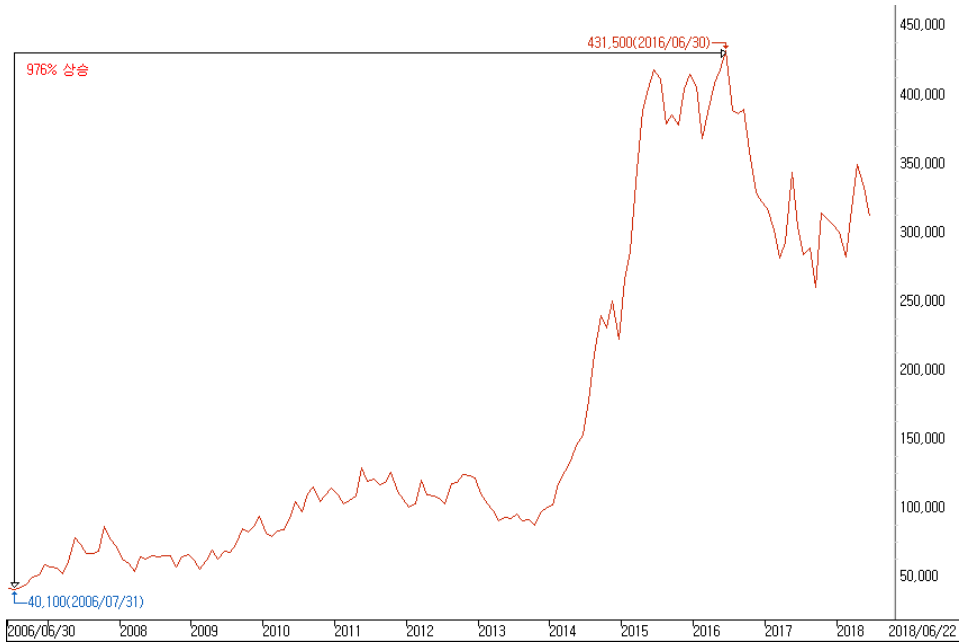
제 17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1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단위 : 원)

	제 17 기	제 16 기	제 15 기
매출액 (주8,31,40)	6,270,463,509,780	6,094,059,406,134	5,328,492,268,366
매출원가 (주31,34,40)	2,460,927,029,869	2,434,038,196,159	2,226,175,065,424
매출총이익	3,809,536,479,911	3,660,021,209,975	3,102,317,202,942
판매비와관리비 (주32,34,36)	2,879,187,494,098	2,779,084,592,453	2,418,222,038,591
영업이익(손실) (주8)	930,348,985,813	880,936,617,522	684,095,164,351
금융수익 (주8,35,36)	4,285,799,110	4,115,635,138	7,606,073,048
금융원가 (주8,35,36)	15,427,075,952	20,167,665,700	35,679,975,295
기타영업외수익 (주33,36)	19,167,483,077	20,590,794,734	48,510,020,627
기타영업외비용 (주33,36)	(78,269,404,541)	(139,990,198,120)	(66,080,620,696)
지분법손익 (주8,15)	1,298,502,931	7,250,466,854	6,325,853,48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주8,37)	861,404,290,438	752,735,650,428	644,776,515,524
법인세비용 (주37)	242,854,775,549	173,495,828,366	174,414,470,074
당기순이익(손실)	618,549,514,889	579,239,822,062	470,362,045,450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주38)	606,653,068,814	568,220,985,690	460,351,207,083
비지배지분 (주7)	11,896,446,075	11,018,836,372	10,010,838,367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귀속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 보통주당이익 (단위 : 원) (주38)	36,199	33,905	27,467
기본 및 희석 우선주당이익 (단위 : 원) (주38)	36,249	33,955	27,517

〈그림 1-2-12〉 LG생활건강 2015년~2017년 재무제표

〈그림 1-2-11〉과 〈그림 1-2-12〉는 LG생활건강의 재무제표이다. 2001년도(4월1일부터) 7,722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지속해서 증가해 2017년엔 6조 2,704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784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017년에는 9,303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그림 1-2-13〉 아모레퍼시픽 종가선 차트

〈그림 1-2-13〉은 아모레퍼시픽의 종가선 차트다. 2006년 7월달 40,100원 이던 주가가 2015년 6월 431,5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기	제 2 기	제 1 기
[유동자산]	445,139	414,182	383,927
· 당좌자산	302,734	300,385	301,439
· 재고자산	142,405	113,797	82,488
[비유동자산]	1,010,039	854,210	729,610
· 투자자산	148,972	140,036	92,534
· 유형자산	779,345	650,722	575,942
· 무형자산	24,032	17,126	14,288
· 기타비유동자산	57,690	46,326	46,846
자산총계	1,455,177	1,268,393	1,113,538
[유동부채]	199,425	177,127	181,339
[비유동부채]	140,448	137,986	134,454
부채총계	339,873	315,113	315,793
[자본금]	34,508	34,508	34,508
[자본잉여금]	712,702	712,702	712,702
[자본조정]	(1,381)	(1,381)	(1,38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915	4,584	(4,188)
[이익잉여금]	338,561	202,867	56,104
자본총계	1,115,304	953,280	797,745
매출액	1,531,336	1,357,006	711,492
영업이익	255,207	248,628	96,26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4,311	247,922	83,605
당기순이익	170,235	177,856	56,104

〈그림 1-2-14〉 아모레퍼시픽 2006년~2008년 재무제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1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10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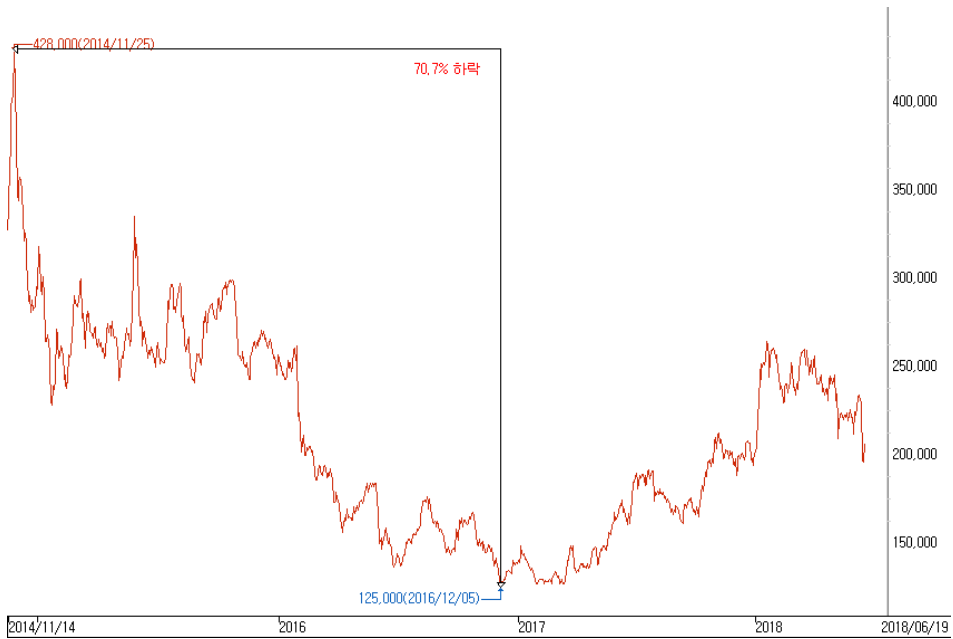
제 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11 기	제 10 기	제 9 기
매출액	5,645,440,160,699	4,766,627,213,300	3,874,007,757,738
매출원가	1,424,760,833,022	1,169,406,018,752	1,028,190,572,667
매출총이익	4,220,679,327,677	3,597,221,194,548	2,845,817,185,071
판매비와관리비	3,372,575,873,578	2,824,311,249,059	2,282,066,064,991
영업이익	848,103,454,099	772,909,945,489	563,751,120,080
금융수익	17,642,299,699	25,538,570,943	13,725,467,336
금융비용	5,933,942,490	3,067,385,277	2,604,217,667
기타영업외손익	(3,333,972,211)	(17,124,779,003)	(44,803,587,159)
관계기업손익	80,378,820	44,768,810	156,843,02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56,558,217,917	778,301,120,962	530,225,625,614
법인세비용	210,829,558,373	193,505,066,411	145,091,897,421
당기순이익	645,728,659,544	584,796,054,551	385,133,728,193
당기순이익의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39,254,633,795	577,523,477,536	379,104,300,639

〈그림 1-2-15〉 아모레퍼시픽 2014년~2016년 재무제표

〈그림 1-2-14〉 2006년 7,114억 원이던 매출액이 〈그림 1-2-15〉 2016년에는 5조6,454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6년 962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2016년에는 8,481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2014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도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율만으로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음 사례를 보자.



〈그림 1-2-16〉 삼성SDS 종가선 차트

〈그림 1-2-16〉은 삼성SDS의 종가선 차트로 2014년 상장 후 428,000 원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125,000원까지 하락을 했다.

연결 손익계산서

제 33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32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31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단위 : 원)

	제 33 기	제 32 기	제 31 기
매출액	9,299,206,129,920	8,180,186,860,839	7,853,458,731,256
매출원가	7,804,602,140,616	6,762,393,574,254	6,560,850,296,622
매출총이익	1,494,603,989,304	1,417,793,286,585	1,292,608,434,634
판매비와관리비	763,044,840,695	790,700,991,315	704,357,072,060
영업이익	731,559,148,609	627,092,295,270	588,251,362,574
기타수익	41,215,803,934	89,326,630,558	50,318,787,472
기타비용	37,251,002,915	19,239,439,765	25,567,699,048
금융수익	90,197,224,346	126,497,825,680	95,991,445,244
이자수익	42,723,967,343	31,559,321,664	30,176,207,815
외환차익	37,722,405,811	56,494,984,041	48,198,473,896
외환환산이익	9,750,851,192	38,443,519,975	17,616,763,533
금융비용	76,086,747,335	75,533,553,009	62,025,543,512
이자비용	1,900,956,600	1,352,329,044	1,909,160,178
외환차손	41,616,916,543	61,977,133,813	48,263,431,790

〈그림 1-2-17〉 삼성SDS 2015년~2017년 재무제표

그런데 〈그림 1-2-17〉 재무제표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런데도 주가는 2016년 12월까지 70.7%나 하락했다. 125,000원의 주가가 다시 상승해 전고점인 428,000원까지 가려면 340%가 상승해야 한다.



〈그림 1-2-18〉 현대상선 종가선 차트

〈그림 1-2-18〉은 현대상선의 종가선 차트로 2003년 8,000원대이던 주가가 종가기준 2007년, 2010년도에 30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 이 종목은 감자했기 때문에 주가는 다르지만, 비율은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34 기	제 33 기	제 32 기	제 31 기
[유동자산]	2,207,625	1,901,214	1,719,520	1,998,546
· 당좌자산	1,990,232	1,777,314	1,594,545	1,910,620
· 채고자산	217,393	123,900	124,975	87,926
[비유동자산]	6,777,824	6,989,248	4,591,421	4,072,642
· 투자자산	1,120,088	938,330	701,755	365,592
· 유형자산	5,472,415	5,876,963	3,710,396	3,534,084
· 무형자산	122,926	130,180	133,574	129,227
· 기타비유동자산	62,395	43,775	45,696	43,739
자산총계	8,985,449	8,890,462	6,310,941	6,071,188
[유동부채]	1,526,603	1,441,429	1,052,276	998,574
[비유동부채]	5,120,428	4,450,157	3,059,465	2,848,526
부채총계	6,647,031	5,891,586	4,111,741	3,847,100
[자본금]	765,366	765,366	765,366	765,366
[연결자본잉여금]	855,653	851,190	851,401	844,279
[연결자본조정]	△202,886	△288,546	△103,474	9,390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8,305	417,843	△15,907	19,823
[연결이익잉여금]	284,013	1,156,332	555,783	455,865
[소수주주지분]	127,967	96,691	146,031	129,365
자본총계	2,338,418	2,998,876	2,199,200	2,224,088
매출액	6,938,626	8,930,971	5,934,795	5,481,830
영업이익	△576,408	599,822	221,127	126,385
계속사업이익	△837,562	668,408	195,246	140,164
당기순이익	△837,562	668,408	195,246	140,164
지배회사지분순이익	△802,724	677,781	177,994	122,532
소수주주지분순이익	△34,838	△ 9,373	17,252	17,632
기본주당순이익(원)	△6,531	5,110	1,388	1,047
희석주당순이익(원)	△6,531	5,077	1,379원	1,041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14개사	14개사	13개사	15개사

〈그림 1-2-19〉 현대상선의 2006년~2009년 재무제표

〈그림 1-2-19〉는 주가가 상승했던 구간 중 2006년~2009년의 재무제표이다. 2008년도까지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2009년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매출액	8,046,896	7,420,767	8,124,208
영업이익	-509,616	-357,397	570,157
계속사업이익	-988,556	-534,836	563,141
중단사업이익	0	522	13,254
당기순이익	-988,556	-534,314	576,395
지배회사지분순이익	-984,991	-524,496	586,277
소수주주지분순이익	-3,565	-9,818	-9,882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단위 : 원)	-6,948	-3,675	4,515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39개사	33개사	31개사

〈그림 1-2-20〉 현대상선의 2010년~2012년 재무제표

2010년 다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회복하나 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고 감자와 유상증자 등으로 이전 고점에서 보유 중인 투자자한테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승 주가가 급등했던 기간 그리고 일시적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2009년 업황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업의 미래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매출이나 영업의 실적 부분만으로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재무제표 분석으로 좋은 기업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림 1-2-21〉 디에스티 종가선 차트

디에스티라는 종목의 종가선 차트인데 거래정지가 되었다가 최근 거래가 재개 되었다. 거래정지가 된 이유는 아래 재무제표에서 나온다.

(단위:원)

구분	제23기	제22기	제21기
사업연도	(2017년 12월말)	(2016년 12월말)	(2015년 12월말)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I. 유동자산	30,034,217,676	45,075,644,889	64,909,298,251
현금및현금성자산	1,016,903,643	5,804,786,108	370,537,192
단기금융자산	1,500,147,992	9,613,600,763	8,040,835,763
매출채권	7,625,595,264	11,139,341,903	8,080,626,108
기타단기수취채권	10,343,589,764	5,164,432,635	35,976,481,209
매각예정자산	1,462,850,817	2,117,769,740	2,369,858,956
재고자산	6,875,945,899	6,000,005,651	432,026,162
기타유동자산	1,209,184,297	5,235,708,089	9,638,932,861
II. 비유동자산	29,709,004,444	33,556,919,245	109,385,082,575
장기금융자산	1,881,704,327	535,044,365	243,952,800
기타장기수취채권	1,851,100,950	1,956,939,540	3,002,818,921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264,391,296	-	2,689,346,666
투자부동산	9,650,738,331	9,864,845,142	10,078,951,951
유형자산	10,435,348,537	12,715,363,507	33,270,029,336
무형자산	3,625,721,003	6,484,726,691	58,099,982,901
기타비유동자산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자 산 총 계	59,743,222,120	78,632,564,134	174,294,380,826
I. 유동부채	57,079,263,894	62,166,650,626	107,298,901,510
II. 비유동부채	623,903,156	5,145,035,704	31,278,830,890
부채총계	57,703,167,050	67,311,686,330	138,577,732,40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6,094,178,959	14,183,568,973	23,633,141,324
자본금	4,624,069,500	46,240,695,000	70,757,525,000
자본잉여금	86,822,221,984	44,252,234,353	6,026,552,344
기타자본항목	- 2,304,017,403	- 1,676,220,390	- 1,719,570,61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4,238,893	- 87,218,356	925,094,350
이익잉여금(결손금)	- 72,853,856,229	- 74,545,921,634	- 52,356,459,756
비지배지분	- 14,054,123,889	- 2,862,691,169	12,083,507,102
자본총계	2,040,055,070	11,320,877,804	35,716,648,426
자본과부채총계	59,743,222,120	78,632,564,134	174,294,380,826

〈그림 1-2-22〉 디에스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지속해서 자본잠식상태였고 특히 2016년(자본총계 : 113억 원 < 자본금 : 462억 원)과 2017년(자본총계 : 20억 원 < 자본금 : 46억 원)에는 2년 연속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상황이었다. 이 부분은 재무제표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2-23〉 한국정밀기계의 종가선 차트

〈그림 1-2-23〉 한국정밀기계도 현재 거래정지상태이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혹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심의하고 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제 20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 19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18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단위 : 원)

	제 20 기	제 19 기	제 18 기
매출액	44,688,538,825	23,000,968,099	35,571,865,298
매출원가	51,969,003,185	25,002,879,355	42,126,981,540
매출총이익	(7,280,464,360)	(2,001,911,256)	(6,555,116,242)
판매비와관리비	6,514,635,531	5,315,016,066	10,051,558,219
영업이익(손실)	(13,795,099,891)	(7,316,927,322)	(16,606,674,461)
금융수익	1,173,414,297	1,004,740,004	1,638,826,016
금융비용	1,252,608,119	833,776,603	956,608,752
기타수익	1,004,666,872	712,596,030	1,086,556,196
기타비용	2,795,021,028	11,288,266,544	1,336,230,657
관계기업투자이익(손실)	(2,405,928,988)	(2,521,036,432)	(771,966,91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070,576,857)	(20,242,670,867)	(16,946,098,572)
법인세비용	(8,984,973,775)	(984,140,552)	(3,839,755,673)
당기순이익(손실)	(27,055,550,632)	(21,226,811,419)	(13,106,342,899)
기타포괄손익	(3,805,042,177)	2,744,371,199	2,137,391,890

〈그림 1-2-24〉 한국정밀기계 2015년~2017년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7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1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15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단위 : 원)

	제 17 기	제 16 기	제 15 기
수익(매출액)	59,755,788,724	48,066,258,587	100,215,290,275
매출원가	64,116,771,868	42,217,663,791	83,946,545,053
매출총이익	(4,360,983,144)	5,848,594,796	16,268,745,222
판매비와관리비	11,303,150,366	8,832,076,390	16,117,152,021
영업이익(손실)	(15,664,133,510)	(2,983,481,594)	151,593,201
금융수익	2,264,890,055	2,566,094,937	3,699,511,658
금융비용	1,163,654,683	1,630,839,223	2,824,405,697
기타 수익	203,173,158	473,970,522	757,277,888
기타 비용	43,651,826	2,630,404,292	477,783,652
관계기업투자이익(손실)	(598,113,278)	(623,614,748)	565,858,3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5,001,490,084)	(4,828,274,398)	1,872,051,698
법인세비용	(3,538,061,412)	(1,186,561,672)	(364,570,276)
당기순이익(손실)	(11,463,428,672)	(3,641,712,726)	2,236,621,974
기타포괄손익	(2,472,460,621)	(1,816,087,608)	2,983,481,26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 기타포괄손익	(2,456,570,166)	(1,626,008,631)	2,788,644,174
매도가능금융자산	(2,452,839,036)	(1,626,002,781)	2,855,500,128
지분법자본변동	(3,731,130)	(5,850)	(62,804,244)

〈그림 1-2-25〉 한국정밀기계 2012년~2014년 손익계산서

코스닥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5년 연속영업 손실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기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냈다. 상장폐지 기준인 것이다. 이렇듯 재무제표는 좋은 기업 찾는 것보다는 나쁜 기업들이 더 명확히 잘 보인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좋은 기업보다는 나쁜 기업을 골라내는 데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여태까지 예를 들었던 종목들은 우량주 및 중·소형주를 예로 든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이나 분석 도구로써 단점

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초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설명한 것이 아닌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차티스트는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통해서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고 가치투자자는 기업의 실적과 가치판단으로 장기투자가 답이라고 말한다. 필자의 결론은 단순하다. 둘 다 무시 못하고 결국 상호 보완관계여야 하고 데이트레이더 역시도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투자자 역시도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철저히 익혀야 한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활용해 공부하는 데 있어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 속에 진행하도록 한다. 꾸준한 시장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매매전략을 다듬어 타인에 의지하지 않는 자신만의 단순한 매매전략을 완성하기를 바란다.

기본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책을 쓰겠지만 현재 이 책은 기술적 분석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될 것이다.

3. 투자자(Investor) vs 트레이더(Trader)

앞서 설명한 기술적 분석 vs 기본적 분석의 내용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맥락상 반복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서 설명할 투자자 vs 트레이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자를 분류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무제표를 주로 매매근거로 활용하는 투자자와 기술적 분석인 차트를 활용하는 트레이더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보자면 기업 자산 가치를 보고 최소 3년 이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장기투자자, 기업의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보는 투자자, 기업의 현재가치나 수익성보다 미래 성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 업종의 대장주 다시 말해 주도적 성격의 종목들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경우, 차트를 이용해 1주일 이상 보유하는 스윙트레이더, 대부분 당일 매매로 결정 내는 데이트레이더, 수초 혹은 수분 이내에 매매를 끝내는 스캘퍼가 있다.

투자자와 트레이더 중 어느 쪽이 수익률 혹은 수익금을 크게 낼 수 있을까? 사실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운용자금 규모에 따라 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좋다. 트레이더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는 트레이더보다 장기적으로 보유한 투자자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수익률이나 수익금이 좋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투자자보다는 치고 빠지는 데이트레이더가 수익률이 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번 논쟁이 되는 것이 상승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하락장에서는 역시 단기가 최고라는 말이 나온다.

결국 지나 봐야 상승장 혹은 하락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상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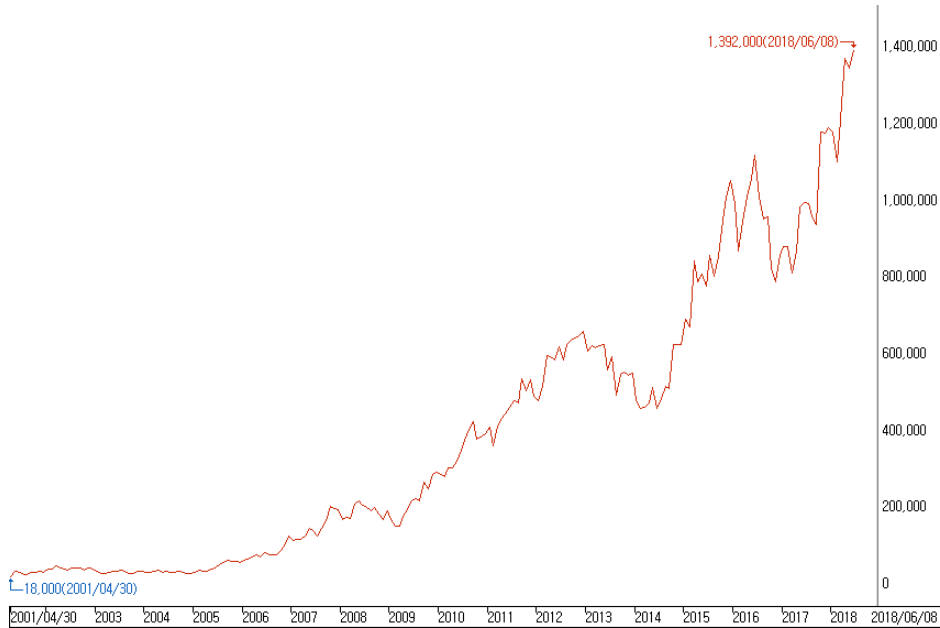
에서는 시장 주도업종을 매수할 경우 큰 자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수익률이나 수익금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때는 수급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 쏠리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데이트레이더하는 입장에서는 능력이 탁월한 트레이더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하락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종목이 좋아도 큰 파도를 건디지 못하고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는 데이하는 입장에서 수급이 좋은 영웅 종목이 나타나는데 이 종목만 매매해도 수익이 쏙쏙하다. 남들은 하락장이라 자고 일어나면 평가손익이 줄어들든지 손실이 나는데 데이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만 매매하게 될 경우 수익이 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다 데이트레이딩을 한다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겠지만 자신만의 매매기법을 활용한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가치투자자의 관점이던 트레이더 관점이던 대부분의 책이 수익 난 경우에 관련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결국은 장기투자가 답이네', '그래 차트 분석만 잘하면 수익 낼 수 있는 데이트레이더가 답이야'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쉽게 만든다. 필자는 둘 다 접해보고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럼 먼저 장기투자자로 인해서 큰 수익이 난 경우와 반대로 손실이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트레이더 역시도 큰 수익과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책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접해보는 재무제표 분석과 트레이더가 매매기준으로 삼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종목의 예를 보도록 하겠다. (액면분할, 액면병합,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 등이 있었던 종목은 기준주가 변동으로 차트에 보이는 주가는 수정주가 :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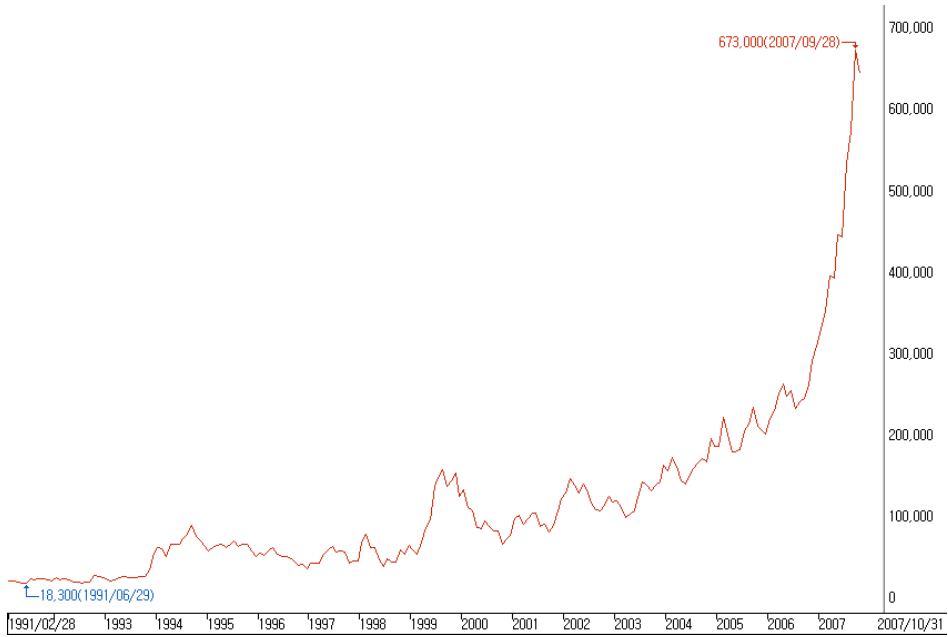
않으면 무시해도 무방)

앞 장에서 언급한 종목들이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다시금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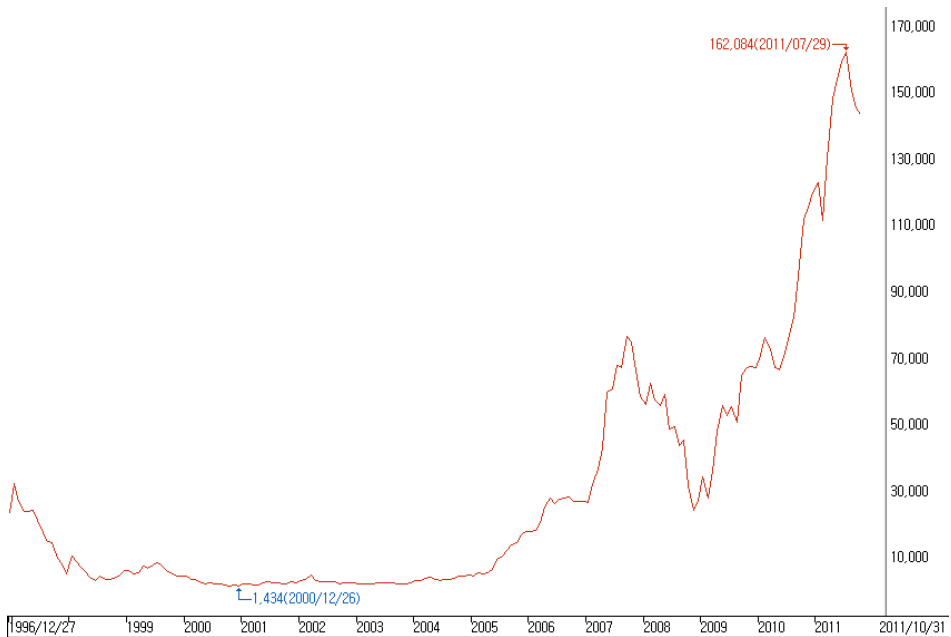
〈그림 1-3-1〉 LG생활건강 월 종가선 차트

주가가 18,000원(2001/04/30)에서 1,392,000원(2018/06/08)으로 상승했으나 상승률은 7,633%이다. 대주주를 제외하고 실제 이런 경우(17년간 보유)는 극히 드물겠지만, 이론적으로 18,000원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보유했다면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다. 만약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주식 가치가 7억 6천여만 원이라는 의미가 된다. 2010년도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보유해도 상당한 수익, 2014년도 조정 시 매수(약 49만 원)해서 현재까지 4년 정도 보유했어도 수익률이 200%가 넘는다.



〈그림 1-3-2〉 POSCO 월 종가선 차트

역시 18,300원(1991/06/29)에서 673,000원(2007/09/28)까지 16년에 걸쳐 3,577% 상승률을 보였다. 중간에 2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 장기투자자로 큰 수익을 봤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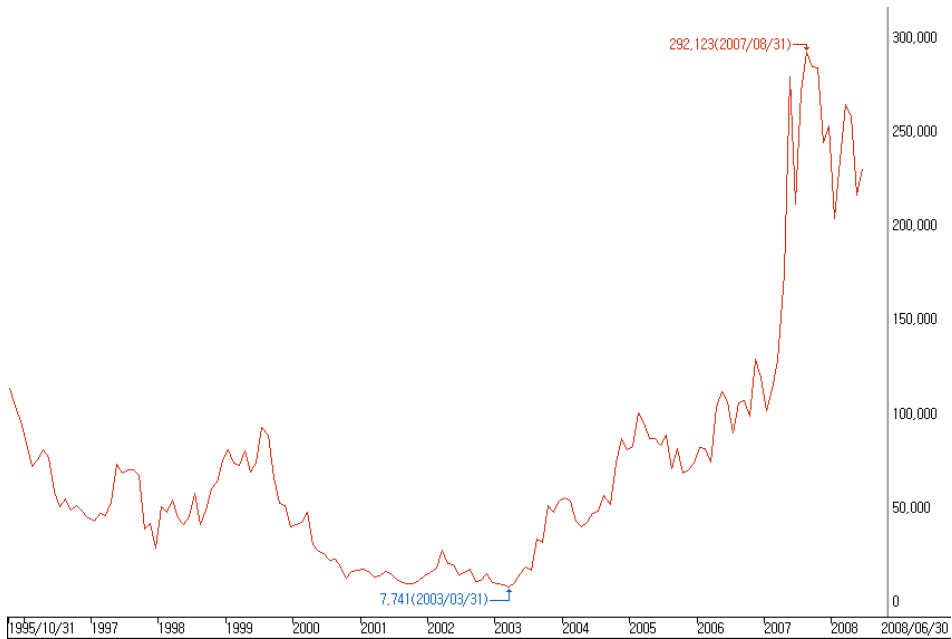


〈그림 1-3-3〉 삼성엔지니어링 월 종가선 차트

1,434원(2000/12/26)에서 162,084원(2011/07/29)으로 11년의 장기간 동안 무려 11,202%나 상승을 보였다. 장기투자자로 2천 원, 1만 원, 5만 원에 매수했어도 몇 년 동안 보유했다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434원이나 162,084원은 실제 매수되는 가격이 아닌데 보이는 것은 2016년 2월 18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수정주가를 적용한 경우라서 그렇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현재는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정도만 알면 된다.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6년 02월 18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56,000,000	5,000	8,110	-

〈그림 1-3-4〉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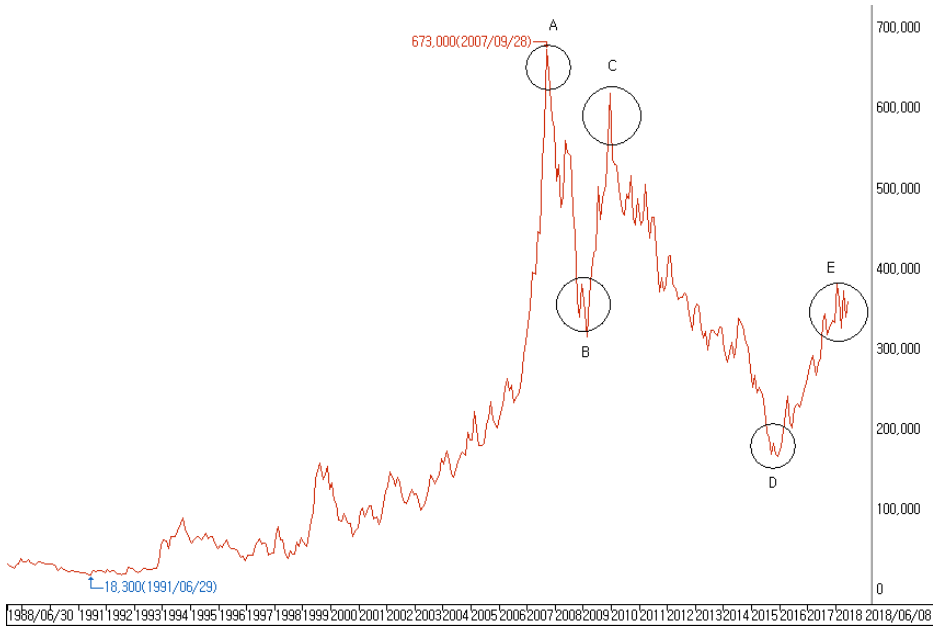
〈그림 1-3-5〉 현대상선 월 종가선 차트

현대상선 종목이 7,741원(2003/03/31)에서 292,123원(2007/08/31)으로 4년에 걸쳐 3,673%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역시 1만 원, 2만 원, 5만 원에 매수해서 장기로 보유했다면 수익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가? 역시 장기투자를 해야 큰 수익이 나지 않는가? 이제 기업가치가 현재보다 저평가되었고 향후 미래에 수익성이 높고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을 사서 5년이고 10년이고 묻어 두면 위처럼 인생역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현재 저평가되었거나 영업이익이 급증했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판단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해외에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국내에서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있을 수도 있고 중국 사드 배치 보복 문제로 관련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인데, 새로운 종목 보다 좀 전에 봤던 POSCO,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상선을 다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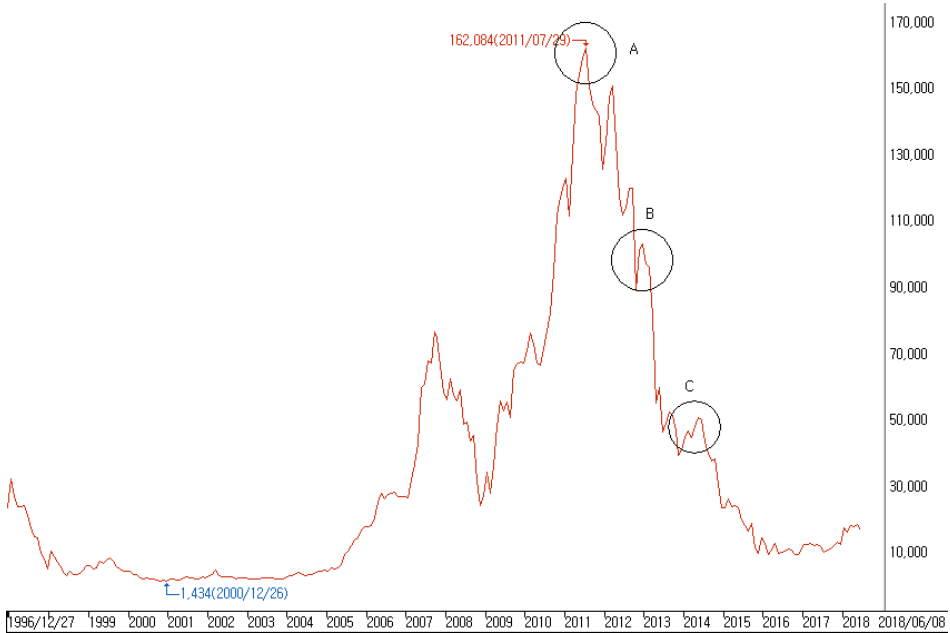


〈그림 1-3-6〉 POSCO 월 종가선 차트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봤을 때 어떤가? 그래도 1991년도에 매수했다면 크게 수익 났다고 생각이 드는가? 주식은 매수와 매도가 함께 이뤄진다. 누군가는 A구간에서 매도했지만, 매수한 사람도 있다. B, C, D, E 역시 도 매도한 사람이 있다면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

데이트레이더는 제외하고 장기투자자 입장에서 매수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A구간에서도 더 큰 성장성, 수익성을 보고 장기투자 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거의 10년 동안 보유했을 때 D구간 20만 원 이하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고통이 따랐을 것이다. A구간에서 매수 이후 B구간에서 반등이 나와 C구간까지 왔을 때 이제 조금만 더 상승하면 본전

혹은 고점 돌파해서 100만 원대로 가겠지라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C구간 이후 무려 6년여에 걸쳐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그 자금이 여유자금이 아닌 노후자금, 퇴직금, 기타 대출로 투자한 경우라면 더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림 1-3-7〉 삼성엔지니어링 월 종가선 차트

삼성엔지니어링 차트 역시도 전체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어떤가? 처음에 보여준 느낌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너무 많이 하락했는데? 오히려 매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16만 원대가 1만 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B구간은 A구간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 깊은 조정으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C구간은 A구간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으로 너무 많이 하락해서 지금 사면 큰 수익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매수한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C구간에서 매수(5만 원대)한 투자자는 현재가 19,650원

(2018년 10월4일 기준)으로 60% 손실 중이고 본전이 되려면 154% 상승해야 하고, B구간에서 매수(10만 원대)한 투자자는 80% 손실 중이고 본전이 되려면 408% 정도의 상승, A구간(16만 원대)이라면 87% 손실 중, 본전은 무려 714%의 상승률이 필요하다. A구간부터 현재까지 거의 7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모든 종목이 하락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16만 원 하던 주식이 1만 원대로 추락한 것인가? 반대의 경우 1천 원대 주가가 16만 원까지 가기도 했다는 사실을 같이 상기해주길 바란다. 이 말은 주가는 상승할 때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반대로 하락할 때도 어디가 저점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만 보고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아래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쳐 거침없이 주가가 상승했던 2010년, 2011년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자.

손익계산서

제43기 2009년 01월 0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제42기 2008년 01월 0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제41기 2007년 01월 0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43기	제42기	제41기
매출액	3,471,400,950,517	2,635,597,984,849	1,878,160,942,562
매출원가	2,890,591,986,893	2,243,115,240,005	1,533,655,384,683
매출총이익	580,808,963,624	392,482,744,844	344,505,557,879
판매비와관리비	265,193,732,844	262,601,330,916	217,866,076,011
영업이익	315,615,230,780	129,881,413,928	126,639,481,868

〈그림 1-3-8〉 삼성엔지니어링 2007년~2009년 재무제표

연결 손익계산서

제 45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제 44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단위 : 원)

	제 45 기	제 44 기
매출액	9,298,184,259,873	5,312,261,561,245
매출원가	8,219,469,409,501	4,501,886,416,951
매출총이익	1,078,714,850,372	810,375,144,294
판매비와관리비	459,729,898,438	381,769,364,377
기타영업수익	334,535,708,987	188,058,457,875
기타영업비용	236,254,396,771	204,410,364,679
영업이익	717,266,264,150	412,253,873,113

〈그림 1-3-9〉 삼성엔지니어링 2010년~2011년 재무제표

이해하기 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따로 정리해서 보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1조 8,781억	2조 6,355억	3조 4,714억	5조 3,122억	9조 2,981억
영업이익	1,266억	1,298억	3,156억	4,122억	7,172억

〈그림 1-3-10〉 삼성엔지니어링 매출액과 영업이익

재무제표를 잘 몰라도 단순히 매출액이 매년 엄청난 성장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영업이익도 상당하다. 주가 상승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이때 당시 아마도 장밋빛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졌을 것이다. 앞으로 주가가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고 고점은 가늠할 수 없다는 등 삼성이라는 타이틀에 누가 봐도 엄청난 수익성과 성장성을 지닌 기업으로 판단하고 장기투자자로서도 메리트가 클 것이다. 그런데 2011년도 6월을 기점으로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무섭게 폭락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12년도부터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도록 한다.

연결 손익계산서

제 48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4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단위 : 원)

	제 48 기	제 47 기	제 46 기
매출액	8,911,451,187,779	9,806,322,604,277	11,440,156,745,378
매출원가	8,365,490,433,103	10,353,331,187,596	10,149,548,239,284
매출총이익	545,960,754,676	(547,008,583,319)	1,290,608,506,094
판매비와관리비	384,127,583,826	481,038,111,540	553,847,347,517
영업이익	161,833,170,850	(1,028,046,694,859)	736,761,158,577

〈그림 1-3-11〉 삼성엔지니어링 2012년 ~ 2014년 재무제표

2012년도는 매출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11조 4,401억 원으로 또 한번 도약했고 영업이익은 7,367억 원으로 역시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2013년도에는 매출은 9조 8,063억 원으로 약간 줄었지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영업이익을 보니 가히 충격적이다. 1조 28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황당하다. 2014년도에는 매출액 8조 9,114억 원, 영업이익 1,618억 원으로 다시금 흑자로 돌아서서 재도약할 것인가 했는데 다음 해 2015년도 영업 성과를 보면 말을 잊지 못한다.

연결 손익계산서

제 49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48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4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49 기	제 48 기	제 47 기
매출액	6,441,250,861,164	8,911,451,187,779	9,806,322,604,277
매출원가	7,530,302,890,643	8,365,490,433,103	10,353,331,187,596
매출총이익	(1,089,052,029,479)	545,960,754,676	(547,008,583,319)
판매비와관리비	365,282,462,137	384,127,583,826	481,038,111,540
영업이익	(1,454,334,491,616)	161,833,170,850	(1,028,046,694,859)

〈그림 1-3-12〉 삼성엔지니어링 2013년 ~ 2015년 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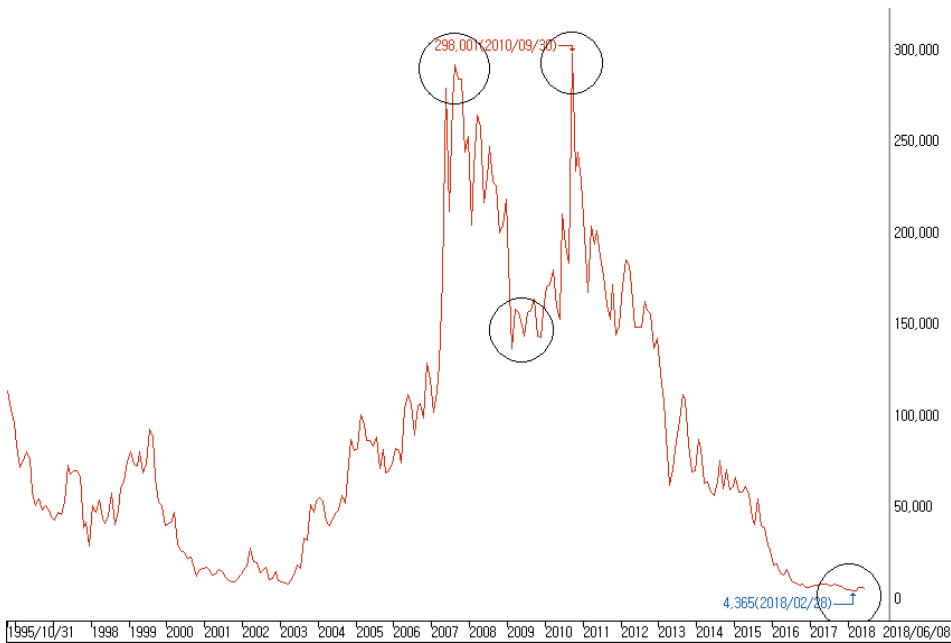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11조 4,401억	9조 8,063억	8조 9,114억	6조 4,412억
영업이익	7,367억	-1조 208억	1,618억	-1조 4,543억

〈그림 1-3-13〉 삼성엔지니어링 매출액과 영업이익

매출액은 6조 4,412억 원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조 4,543억 원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후 2016년도부터 영업이익이 1천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보다시피 16만 원대 고점에서 폭락한 이후 현재는 1만 원대를 3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현재가 19,650원(2018년 10월 4일 기준)이 고점 162,084원(앞으로 언급했듯이 증자로 인한 수정된 주가)에 비해서 턱없이 저가로 판단되는가? 다시금 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최저점인 1,434원으로 다시 회귀할 것인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가?

답은? 모른다. 재차 상승 모멘텀으로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국내외 악재로 인해서 1천 원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아래 현대상선 차트를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30만 원대가 지금은 이전 저점인 7천 원대를 하회해서 4천 원대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저가라서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는가? 아니면 1천 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것인가? 답은? 모른다. 그래서 주식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 성공한 사례를 두고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반드시 실패한 사례는 더 많이 보고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림 1-3-14〉 현대상선 월 종가선 차트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장기투자자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투자라는 것은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서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 등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사례도 많다. 다만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지금 간단히 말하자면, 주식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닌 것을 찾아서 숨아내고 추려내서 (중략)....

5. 고수 vs 하수

무협지나 영화에서 평범한 주인공이 우연한 인연으로 절정고수한테 내공과 무공을 전수받고 무림계를 제패한다는 스토리가 많다. 몇십 년을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도 재미가 있다. 그런 스토리에 열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주인공을 자신에게 투영시켜 내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성취감을 맛보는 것일 거다. 하수였던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고수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모든 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영화에서만 그런 것이 아닌 현실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여러 고수들과 인연이 닿기를 원한다. 그것이 음악, 요리, 작가, 디자인, 주식, 부동산, 패션, 운동, 연기자, 가수 등 수많은 직업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까지 독학으로는 한계치에 부딪히고 과연 지금의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는 경우 때문에 자신보다 앞서 성공한 선배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즉 고수를 찾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주식에서도 고수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주식 초보 때 서점에서 책을 몇 권 사서 보는데 이렇게 하면 수익 난다는 기법이 많고 책에 있는 차트를 보니 흥분도 되고 나도 고수가 될 수 있겠다는 착각도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매매를 해보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는 시장상황이 좋든지 매매한 종목이 수급이나 호재로 인해서 상승해서 수익이 처음부터 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책대로 투자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손실만 보게 되는 경우이다. 전자는 자신감부터 얻게 되었다가 나중에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또 두 가지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손실부터 보게 되어 자신을 인정하고 나하고는 애초부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중단하는 경우

가 있고 아마도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고 손실 난 종목을 분석해 보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더 다르게 접근했어야 했다고 자기 위안을 하는 경우이다.

자기 위안을 하고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책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증권전문가한테 실시간 방송, 유료 방송을 듣고 오프라인 강좌도 직접 참여하고 유명한 고수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서 기법을 전수(?)받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료회비 비용과 더불어 주식투자 손실이 더 크게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전문가한테 유료로 지급하고 강의 듣고 종목 손실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애초부터 부자라서 투자금을 다 날려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모아두었던 자금, 은퇴하고 재테크 할려고 퇴직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주위에 주식으로 수익 났다는 얘기를 듣고 대출받아서 투자한 경우 혹은 결혼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등 투자금이 손실 날 경우 상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자기 기준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손실만 나는 경우를 하수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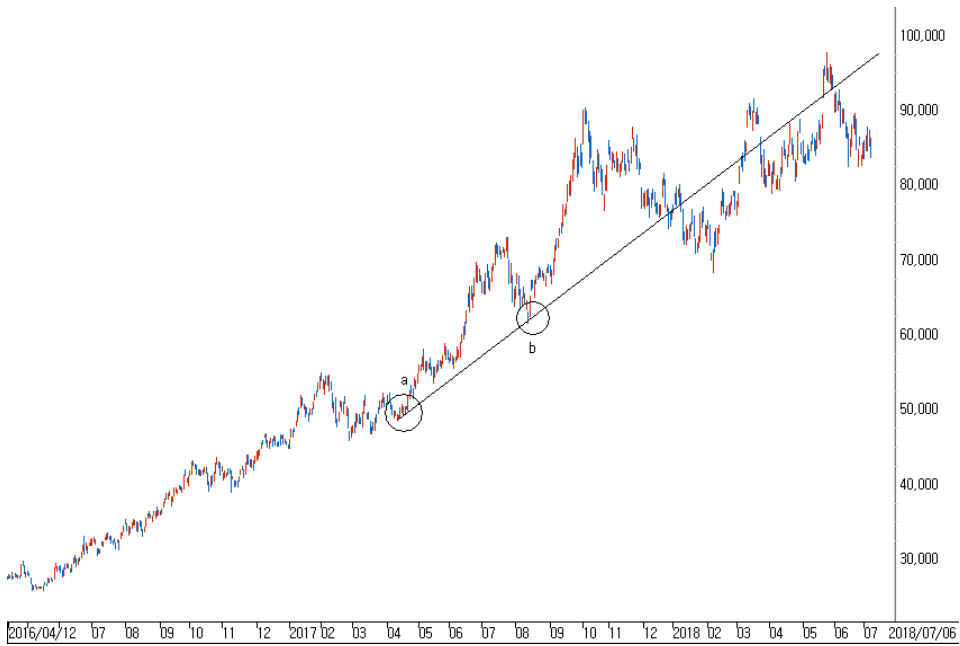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 말을 끝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믿는다고 치고 주식에서도 고수와 하수도 종이 한 장 차이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하수의 생각과 행동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고수가 되지 못한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헤맨다면 평생 하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고수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방향을 잡고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어디까지나 필자가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경험을 해 본 나의 경험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다. 그렇다고 모든 이에게 정답은 될 수 없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최소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답이 있다고 착각하고 비법과 기법을 좇아서 단편적인 기술만 익히고 쉽게 가려고 해서는 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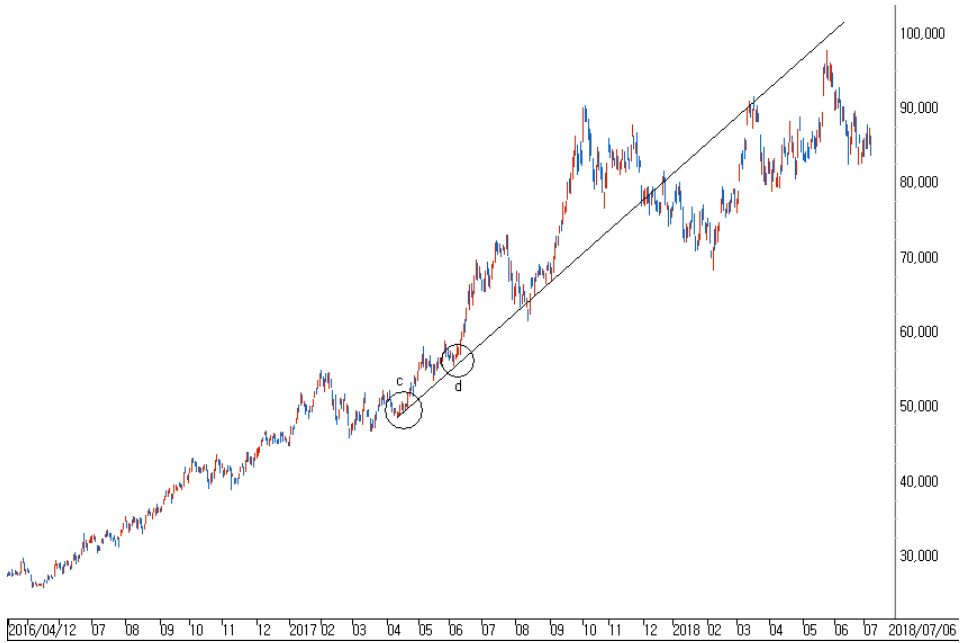
6. 비법 vs 기법 vs 전략

3. 추세선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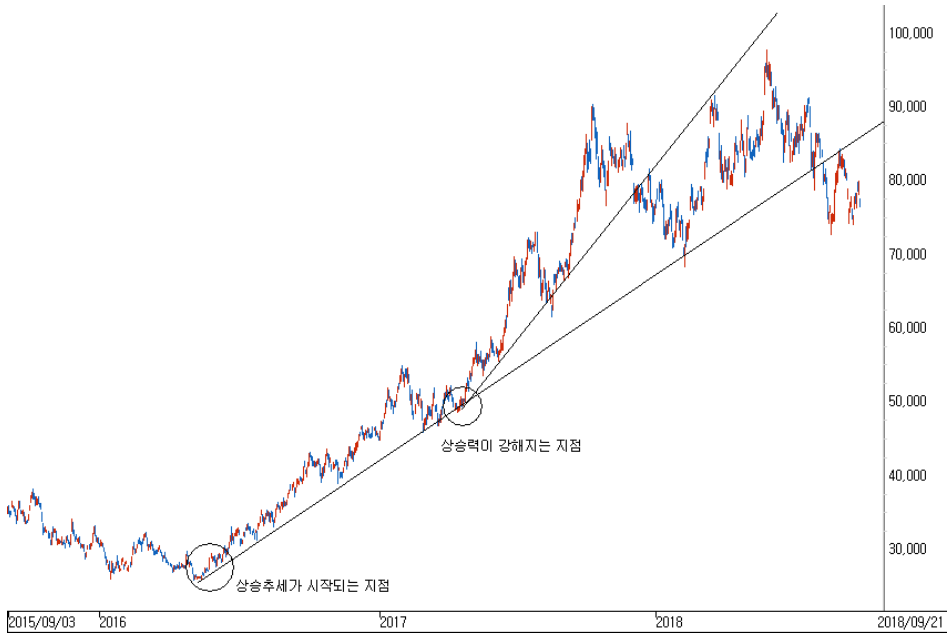
〈그림 4-3-1〉 추세선 : 문제점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도를 하는 사람에 따라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세의 시작점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3-1〉는 a, b지점을 연결해 추세선을 그린 것이다.



〈그림 4-3-2〉 추세선 : 문제점

〈그림 4-3-2〉은 같은 구간이지만 다른 기준으로 c, d지점을 연결해 추세선을 그렸는데 기준점이 달라진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4-3-3〉 추세선 :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짧은 구간의 추세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림 4-3-3〉처럼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구간에서 그려야 한다. 즉 상승추세 혹은 하락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 의미 있는 지점이 되고 그를 기준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작도하며 상승력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구간에 추세선을 다시 작도하는 것이다.



〈그림 4-3-4〉 추세선의 문제점

이런 경우에도 쓰기가 어렵다. 〈그림 4-3-4〉처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추세선을 작도할 수 없다. 기준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는 추세선을 활용하지 않는다.

또한 추세선은 표시된 부분처럼 상승하다가 횡보 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추세선을 이탈해버린다. 그래서 추세선만으로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면 안 되며 파동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5) 0선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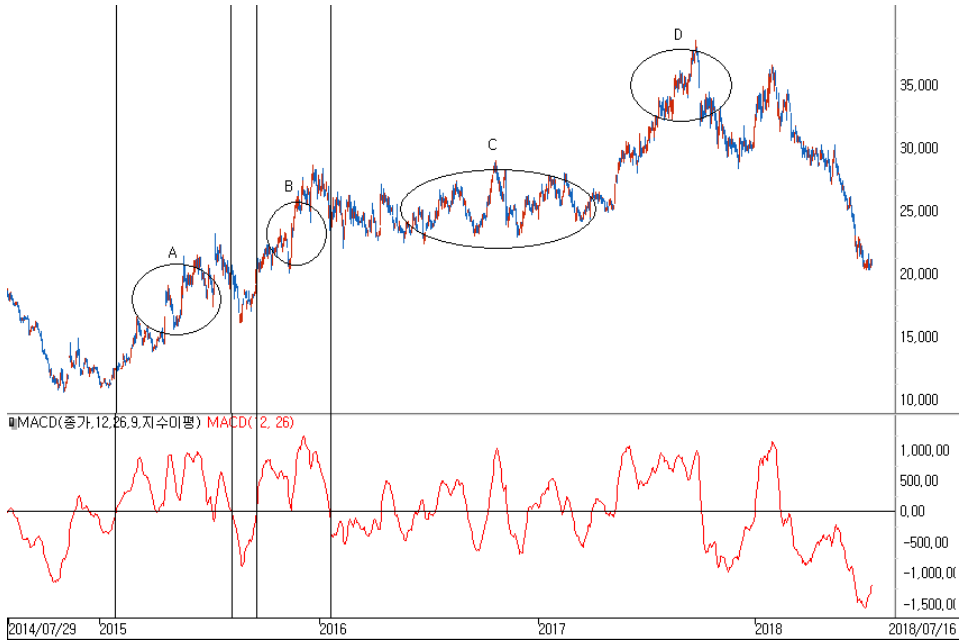


<그림 10-2-8> MACD : 0선 돌파

지표의 값이 0이라는 것은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교차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분석과 같은 원리로 보면 된다. 0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크로스가 되며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고 하향 돌파하면 데드크로스가 되어 매도 신호로 볼 수 있다.

초보자인 경우 중장기적인 추세나 매매에 대한 판단은 0선을 기준으로 해도 무방하다. 쉽게 설명하면 0선 아래에 있으면 관망을 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며 0선을 돌파하면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6) MACD 지표의 문제점



〈그림 10-2-9〉 MACD 문제점

MACD는 추세 지표로 상승이나 하락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신뢰할 수 있으나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거짓 신호가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림 10-2-9〉를 보면 상승추세를 그리는 A, B구간은 지표가 0선을 돌파하며 상승하고 이후 0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C구간을 보면 주가가 횡보하게 되는데 이때 지표도 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표의 성격상 횡보 구간에서는 계속 교차하는 것이다. 또한 D구간을 확대해 보면 다른 문제점도 보인다.



〈그림 10-2-10〉 MACD 문제점

0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고점 대비 13% 이상 하락한 구간이다. 후행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수 이동평균을 이용했고 그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를 이용했지만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거다. 주가의 변동성이 크면 그 변화를 지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림 10-2-10〉을 보면 급등을 하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지표는 0선을 하향 이탈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2일, 26일에서 기간을 줄이면 고점 구간에서 주가가 급변동을 할 때는 신호가 빠르니 쓸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후행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상승구간에서도 약간의 변동에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된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10-2-11〉 MACD 문제점

다이버전스의 활용도 마찬가지이다. 추세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림 10-2-11〉을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오히려 주가는 상승해 버렸다. 이 다이버전스는 〈그림 10-2-11〉처럼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고 조정을 거쳐 다시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가 매번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추세가 변하는 것도 아니다.

(5) 다이버전스



그림 10-4-7> RSI : 하락 다이버전스



<그림 10-4-8> RSI : 상승 다이버전스

RSI의 다이버전스는 다른 보조지표들에 비해 신뢰도가 높지만, 하락 전환이나 상승 전환 구간에서 무조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RSI는 상승과 하락의 에너지를 보는 지표이고 다이버전스는 상승의 힘이 약해지는 지점, 하락의 힘이 약해지는 지점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으니 의미상 다른 지표들보다 신뢰도가 있다는 것이다.

고점이나 저점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침체구간과 과열구간에서 나타나는 다이버전스는 꽤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그림 10-4-7>처럼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 지표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하락 다이버전스 혹은 네거티브 다이버전스(Negative Divergence), <그림 10-4-8>처럼 주가는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지표는 상승하는 것을 상승 다이버전스 혹은 포지티브 다이버전스(Positive Divergence)라고 한다. 결국 RSI는 일봉이나 30분봉 혹은 60분봉에서 지표의 침체와 과열에서의 다이버전스를 실전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술적 분석



Chapter

13

홀로서기

1. 전업투자를 꿈꾸는 이들이 알아야 할 19가지 사항

프로그램 개발자에서 전업투자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시작은 가정환경 때문이었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다. 앞으로 설명할 19가지 사항은 현재 전업투자자인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으며, 전반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었지만 특히나 전업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 사항들을 꼭 고려해서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1) 자신의 환경에 맞게 향후 계획을 세운다. (결혼 여부, 부양가족, 자신의 성향, 학습 등)

미혼인 경우와 부양가족이 있는 것은 차이가 크게 난다. 혼자일 경우 실력을 키우기까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 밥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다. 반면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번 달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고 전업 투자 자금 중 일부에서 충당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수익 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다. 자금이 억대라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몇백씩 왔다 갔다 하니 생활비쯤이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손실 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자신의 성향이 느긋하고 조용하며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하면 데이트레이딩은 맞지 않다. 그런데 만약 투자금이 적다면 전업투자자로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보유하는 가치투자하고는 맞지 않다. 빠른 결과를 원하고 몇 년 동안 보유하는 인내를 가지지 못하는 성향이라면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윙트레이딩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츰 얘기할 것이고 결국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에 자기에게 맞는 주식 투자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남이 해외선물로 수익이 나니깐 나도 하겠다는 생각,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벌

었다고 덩달아 투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자신의 성향 이해와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해보고 최종적으로 투자하는데, 심적으로 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전업투자를 한다는 것은 30대라면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40대라도 최소 20년 이상 주식시장에 몸담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최소 3년 이후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막연한 희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안에 투자금 대부분을 잃게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2) 최소한 1년 이상 생활비는 저축해 두고 관리한다.

전업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수익이 났다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없다. 더군다나 초보일 경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매서움을 겪게 되는 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생활비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손실이 나거나 몰타기 용도로 생활비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정도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는 것과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은 출발선부터가 차이가 난다. 여유가 있다면 3년 이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 1년의 생활비는 저축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전업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어렵다면 전업투자를 저녁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만 그럴 경우 아무래도 장 마감 후 매매 종목 복기, 내일 관심종목 정리 및 주식 공부할 시간과 장중 매매에 집중할 시간, 육체적인 피로 등 전업투자자로서 자리잡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생활비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3) 주식 공부는 철저하게 하되, 결코 기초와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초보 때 실수를 범하는 것이 기초 책 한 권 정도 보고 바로 주식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독하는 것이 아닌 주문하는 방법과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면 된다는 기법을 그대로 믿고 쉽게 판단해서 투자한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 일단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경험, 그것이 결과적으로 플러스이든 마이너스든 긍정적 요소이든 부정적 요소이든 접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손실도 나고 가볍게 하는 것도 좋고 증권전문가한테 강의를 들어도 좋고, 추천한 종목 매매해 보는 것도 다 좋은데 자기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기 전까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금을 줄여서 해보라는 것이다. 절대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고 독자가 생각하는 주식고수는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고수란 이론과 실전을 두루 겸비하고 자신만의 매매기법과 전략이 확립된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어떤 사탕발림에도 주식분야에서만큼은 확고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론의 기초와 기본이 탄탄하게 출발해서 실전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나중에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전 매매영역을 구축한 사람과 바로 기본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전 매매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 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과는 시간이 갈수록 능력치가 월등한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당연히 전자가 능력 있는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에 대한 기준도 없이 허송세월을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보낸 사람을 많이 봤다. 이들의 장점이 있다면 오랜 시간 보고 들은 것은 많아서 입으로는 절정고수이다. 이런 입고수

부러운가?

왜 이론이 중요한지 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지 왜 기본적 분석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는 주식시장에서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손실 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이 책 역시 기초와 기본을 토대로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실전 매매에 유용한 부분을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어떤 책은 너무 이론에 충실하다 보니 원론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초보가 실전 매매로 적용해서 스스로 터득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다른 부류는 이렇게 하면 수익 난다는 절대 수익의 비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부디 현혹되지 말고 정도를 걷도록 하길 바란다.

기초와 기본! 어떤 고수가 되고 싶은가?

(4) 비법이나 기법을 좇기보다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 혹은 트레이더가 되도록 노력한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급등락장, 종목성향)

전업투자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했다. 그 기간에 상승, 하락, 횡보, 급등락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각 장세마다 매매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기법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상승장에서는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라 그게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락장이나 급락장에서도 리스크를 생각해서 손실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부분 주식 초보시절이나 전업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주식으로 절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비법의 유혹을 받게 된다. 카페나 SNS, 각종 매체

를 통해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 1주일 만에 수익 2배 이상 달성 등 자극적인 문구에 눈이 가게 된다. 저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미 내용을 보고 정말 가능한가? 하고 가우뚱한다. 그리고 지켜본다. 추천한 종목이 순식간에 20% 이상 상승하고 어떨 때는 상한가, 그 다음 날에도 급등하고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보게 된다. 신기하다. 아니 신기루다. 어렵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이 여기서는 주는 종목만 매수하고 매도하면 큰돈을 벌 것 같다. 혹시 이 책을 보는 독자 중에서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수익으로 계좌가 불어나던가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계좌손실로 하루하루 힘들어지던가? 대부분 후자일 것이다. 급등하는 검색식 간단하다. 그냥 거래량 동반한 양봉 혹은 N% 이상 상승한 종목으로 설정하면 종목들이 검색된다. 실시간으로 된다. 그중에서 상승하는 5~10 종목을 언급한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상승이나 상한가 간 종목을 나중에 결과를 보고 언급한다. 장이 좋으면 10종목 중 5종목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 상승하다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저런 종목들 추적 매수하다 고점에 물리거나 손절을 하지 못해 원하지 않는 장기투자자가 된다. 장상황과 종목특징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운용자금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결정한다. (초보 때는 1/10 정도로 시작)

초보 때 하는 큰 실수가 처음에는 적은 자금으로 하다가 손실이든 수익이든 결국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손절의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은 조금, 손실은 크게 나는 구조, 거기다가 손절 못하고 막연하게 보유하다 보

니 종목이 10개 이상씩 되기도 한다. 물론 전부 손실 중인 종목이다.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줄이라고 권한다.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전업으로 한다는 것은 1~3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10~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신의 수익패턴을 찾지 못한 상황에 큰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전업하겠다는 것이 아닌 운으로 한탕 하겠다는 것과 같다. 결국 도박이다. 주식은 도박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운용자금의 1/10이다. 그게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차츰 자금을 늘려가는 구조여야 한다.

(6) 수익 극대화의 달콤함에 미수, 신용, 대출을 쓰는 건 사채업자에게 내 돈을 맡기는 것과 같다.

미수, 신용, 대출하지 말자. 제목에도 적었다시피 수익 낼 때는 좋을지 몰라도 손실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 자신의 자금으로만 운용한다면 최악의 경우 자기 돈만 날아간다. 그러나 신용, 대출은 엄연히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거라 빚쟁이가 될 수도 있다. 이자가 저렴하다고 해서 부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력도 없는데 자금력으로 어떻게 해본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매매기법이 완성되기 전이나 그 이후에도 미수, 신용, 대출은 아예 사용하지 말자.

(7) 최우선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 수익 날 확률이 높은 매수 구간 찾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전업투자자가 아니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종목군, 종목업종, 종목패턴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다닐 때 수학이나 과학은 싫고 소설이나 문학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입시시험 때문에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했다. 고등학교 시절 한 번쯤 생각해 본 게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고 그걸로 시험 쳐서 대학교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통한다. 내가 매매하고 싶지 않은 종목은 안 해도 된다. 성격이 급하고 빠른 결과를 원하는데 거래량도 없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이 언제 상승할지 몰라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면 답답해서 미칠 노릇일 거다. 그런 경우 당일 매수, 매도되는 데이트레이더 기법과 전략을 연구해서 그중에 돌파, 박스, 추세, 낙폭과대 등 자신에게 맞는 종목패턴을 찾아야 한다. 반면에 성격이 느긋해서 너무 등락 폭이 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되고 데이트레이딩이 자신이 없으면 장기투자가 맞다.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자신 있는 종목을 찾아서 자신 있는 매수 구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업투자자라면 시간이 많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자료수집과 당일 관심종목 이외에도 특징 종목들의 흐름을 파악해서 연구하도록 한다. 당연히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든다. 주식도 하나의 시장 언어이다. 영어 한두 달 했다고 프리토킹 되지 않는다. 꾸준함 속에 어느 순간 귀가 열리고 말이 트인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다만 영어처럼 수많은 단어나 어구, 표현을 익힌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시장은 하나의 생물체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과 종목의 변화를 읽고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과 안목이 필요하다.

초보가 실수하는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오는데 증권 전문가한테 종목을 받아서 왜 거기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해 없이 설명하는 내용이 좋아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뢰해서 투자하는 경우이다. 자신의 자금은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

는 거다.

아직 자신의 성향이 파악되지 않고 자신 있는 종목군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부터 찾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 내가 매수해서 수익 낼 확률이 높은 구간을 찾도록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하도록 한다. 매수만 잘하면 매도는 그 차후의 문제다. 매수가 자신 있는 곳, 다시 말해 수익 낼 자신 있는 구간이면 그 이후 손절과 수익실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특히 이때는 손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수익실현은 단순히 분할매도하면 된다. 매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도 제대로 못 하는데 매도에 집중한다는 것은 1단계도 아직 통과 못 했는데 8단계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매수 구간에 집중하도록 한다.

저가매수, 고가매도 참 좋은 말이다. 저가매수라는 게 어떤 것일까? 10만 원 주가가 8만 원 혹은 5만 원이면 저가인가? 아니면 3만 원이 저가인가? 주식 차트를 돌려보면 10만 원이 1만 원 이하인 것도 있고 30만 원 주가가 5만 원에서 움직이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 그럼 고가매도는 어떤가? 어느 가격대가 고가인가? 신고가? 5만 원이 10만 원? 1천 원이 3만 원? 이 역시 차트를 보면 터무니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단기적으로 몇백 프로에서 몇천 프로 상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럼 다시 확인해 보면, 저가란? 고가란? 필자는 여기에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저가란 현 주가가 얼마든 관계없이 내가 매수해서 수익 낼 확률이 높은 주가가 내 기준 저가이고 고가란 따로 정하지 않고 다만 매도할 때 고가에 매도하겠단 생각보다 수익 나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한다. 저가와 고가란 상대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내가 자신 있는 종목을 골라서 자신 있는 매수 구간에 매수하는 것 이게 전부다.

3. 홀로서기

세상살이 모든 사안에는 기초가 있다. 한글을 배워도 ㄱ, ㄴ, ㄷ이 있고 처음 수학을 배울 때 1, 2, 3의 숫자 세는 법과 $1+1=2$ 라는 것을 익힌다. 운동 역시 기초체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원하는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유연성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초체력이 다져진 상태에서 원하는 종목의 기본기를 익히고 숙달시켜 기술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게 정석이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기술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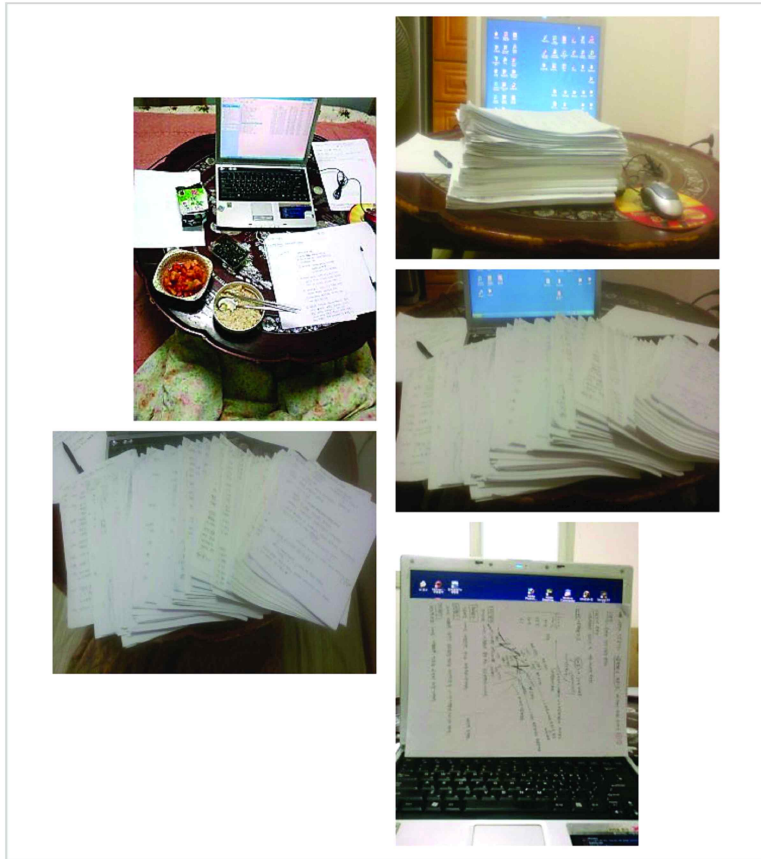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반복되고 지겹도록 강조하는 부분이 기초와 기본이다. 앞에서 주식 마인드(정신체력)에 대한 부분을 읽고서 이해한 다음에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기초체력)을 배워서(학) 익혀(습) 실전에 적용(기술)해 보고 시장 상황, 종목성향에 따른 자신만의 매매기법과 전략을 찾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수익 낼 수 없다.

기술적 분석 모르고 수익 낼 수도 없다.

운이 좋아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차트를 해석하는 기술적 분석은 주식투자, 매매기술을 향상하는 기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기술적 분석을 익히고 나서 잊고 나 자신이 지표가 되도록 하고, 쉽지 않은 주식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려면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홀로서기 하도록 해야 한다.



위 사진은 필자가 호주머니에 1천 원도 없던 시절이었다. 30대 초반에 집안의 부도로 가사가 기울고 3년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가족이 임대아파트 15평,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4만 원으로 살던 때인데 책상 놓을 자리도 없어 밥상으로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했던 시절이다. 기술적 분석 공부한 내용을 프린트한 것 없이 전부 볼펜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인 빚도 있었는데 월급쟁이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부도 났을 때 수없이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지만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시험해보고 싶었고 더 떨어질 곳도 없다 생각하니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보자는 생각으로 틈틈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

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결혼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고 부양할 가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 혼자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버스를 타고 1시간여 걸려 도착한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다. 그곳에서 점심이라도 한끼 먹고 바람 쐬고 왔던 적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원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나중에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는 생각으로 매번 핸드폰을 교체하더라도 사진을 옮겼고 혹여 살아가는 데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 사진을 한 번씩 들여다보며 마음을 잡고는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나의 모습보다 내년이, 내년보다는 3년 후 더 성장하고 발전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한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필자처럼 공부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이 아니어도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노력 없이는 결과도 없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다. 인생에서 3번의 기회라는 것은 만들어진 말이지 얼마든지 수십 번 혹은 그 이상의 기회를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이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철저히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분명 실력 있는 투자자 혹은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다 보면 일시적인 현상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 공통되고 반복된 주가와 시장 흐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찾아낸 모든 곳이 수익 낼 수 있는 자

리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맞는 이길 수 있는 곳이 보일 것이다. 이때 기본적인 분석과 공시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숙아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술한 실패도 맛볼 것이다. 그럴 때마다 좌절이나 절망보다는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포기보다는 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한다. 실패했지만 분명 종목분석 능력이 이전보다 진전되었을 것이고 다음번에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매매기법을 찾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단축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매매기법과 매매전략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일 카네기는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늘 빠르고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은 아니다. 늦거나 빠르긴 해도 인생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했다.

주식 인생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국 이기는 습관을 몸에 익혀 홀로서기 하도록 한다.

“기술적 분석” 책 구매는 아래 링크 클릭

<https://smartstore.naver.com/esupport/products/3699092758>

<https://smartstore.naver.com/esupport>